지역 소식통

정읍시, 식품위생업소 식품안전관리 강화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배달 음식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김밥 전문점과 회 취급 식품위생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지도 점검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주말·휴일 제외)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 여부 △배달함 위생 관리 상태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자 또는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 청구 등의 행정처분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출하시기 맞춰 '건고추 장터' 개장

고창군은 본격적인 고추 출하시기에 맞춰 '건고추 장터'를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신규 조성된 '고창군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개장한다.

건고추 장터는 생산농가와 상인, 소비자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직거래 장터로 생산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품질의 고추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자리다.

오는 10월까지 이어지는 장터는 고창 장날인 매월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에 맞춰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하며, 부대시설과 고객쉼터를 제공해 농가와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고창군은 건고추 장터 활성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예산 5억원을 확보해 판매시설 신축을 통한 장터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해 인지도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민행복·활력고창' 중점

민선 8기, 효율적 행정 혁신 조직개편안 마련

민선 8기 고창군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민선8기 출범에 따른 행정 혁신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군 소속 행정기구를 현행 2국15과, 1담당관, 1의회, 2직속(2과), 3사업소에서 2실1정책관1과, 1의회, 2국13과, 1의회, 2직속(4과), 2사업소로 변경하고 부서이름도 군민이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조정한다.

특히 금번 조직개편은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에 그 중점을 두었다.

'고루 잘 사는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을 위해 농업정책과 및 농촌활력과와 해양수산과, 축산과를 두며,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 생동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신활력경제정책관, 건설도시과를, '천혜의 자연환경, 누리고 즐기는 문화관광 1번지'를 위해 관광산업과와 문화예술과를, '안전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사회복지과, 안전총괄과를,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인재양성과를, '존중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군민'을 위해 행정지원과를 배치한다.

또한 대민 업무 지원 강화와 업무추진력 확보를 위해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예산실과 종합민원실,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를 배치해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인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창을 위해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종합민원실을 기존 5급(사무관) 과장에서 4급(서기관) 실장으로 승격시켰으며, 또한 종합민원실 내 '허가팀' 신설하여 모든 민원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보다 정확하고 빠른 민원처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행복 고창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선 8기 조직개편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활력 넘치는 고창'을 책임지는 '신활력경제정책관'이다. 과 내에 미래전략팀을 신설해 향후 노을대교 대전환 업무와 고향사랑기부제, 관계인구 10만 늘리기 등의 고창의 현안사업을 맡긴다.

또 해상풍력과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팀이 신설되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일자리팀, 소상공인육성팀을 배치하고 청년창업팀을 통해 고창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기존 문화유산관광과에서 관광분야를 확대·분리해 '관광산업과'를 신설하고 세계문화유산팀, 세계자연유산팀을 배치, 세계유산도시 업무를 관광산업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한다. 운곡습지 관련 업무도 관광산업과에 포함해, 보다 전문적인 생태관광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재양성과를 신설해 여성·아동·청소년 업무를 한 곳에서 추진하도록 했고 평생교육 등을 통해 인재들이 고창을 떠나지 않고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고루 잘 사는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조직도 더욱 강화된다.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해양수산과도 기존 농어민 지원사업 외에 사업기획·정책발굴 업무를 대폭 보강했다. '농촌인력팀'을 만들어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건소 직제도 개편된다. 보건소장 직급을 5급(지방사무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높이고 2개과(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신설을 통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는 지난 8일 정읍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총괄하기 위해 예원예술대학교 조인석 교수를 센터장으로 위촉했다.

"정읍시만의 도시재생 방향을"

정읍시, 조인석 예원예술 교수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위촉

정읍시는 지난 8일 정읍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총괄하기 위해 예원예술대학교 조인석 교수를 센터장으로 위촉했다.

위촉 기간은 2022년 8월 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이날 위촉된 조인석 센터장은 전북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창업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또한 전북지방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 위원, 전북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멘토단, 정읍 공동체활성화센터 멘토로 활동한 바 있다.

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6년 5월 2일부터 도시재생 중간 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샘고을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현장지원센터를 비롯해 리본현장지원센터와 연지뜰 현장지원센터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기능은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 주민협의체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운영 △ 주민교육계획 수립·운영 및 홍보 △ 주민과 행정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정읍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예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전 단계와 주민 의견 수렴, 도심 재생에 필수적인 상권 활성화, 사람과 사람의 관계 형성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공동화되어가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컨설팅을 담당하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총괄·조정자로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정읍시만의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당절임 식품 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 획득

정읍시농가공센터, 과채주수·잼·과자 이어 4개 품목 확대 '안전사업장 입증'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당절임 유형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 인증을 획득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은 소비자가 농산물 가공식품을 최종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가공사업장의 원료 입고부터 제조, 가공, 유통까지 판매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한 사업장임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당절임 HACCP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서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의 HACCP 인증 품목은 과채주스와 잼, 과자류까지 총 4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지난 2020년 첫 가동을 시작한 농산물가공센터는 HACCP 인증과 함께 안전한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내부 시설 및 가공 장비 보완, 관리기준 수립, 종사자 교육 등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당절임 유형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 인증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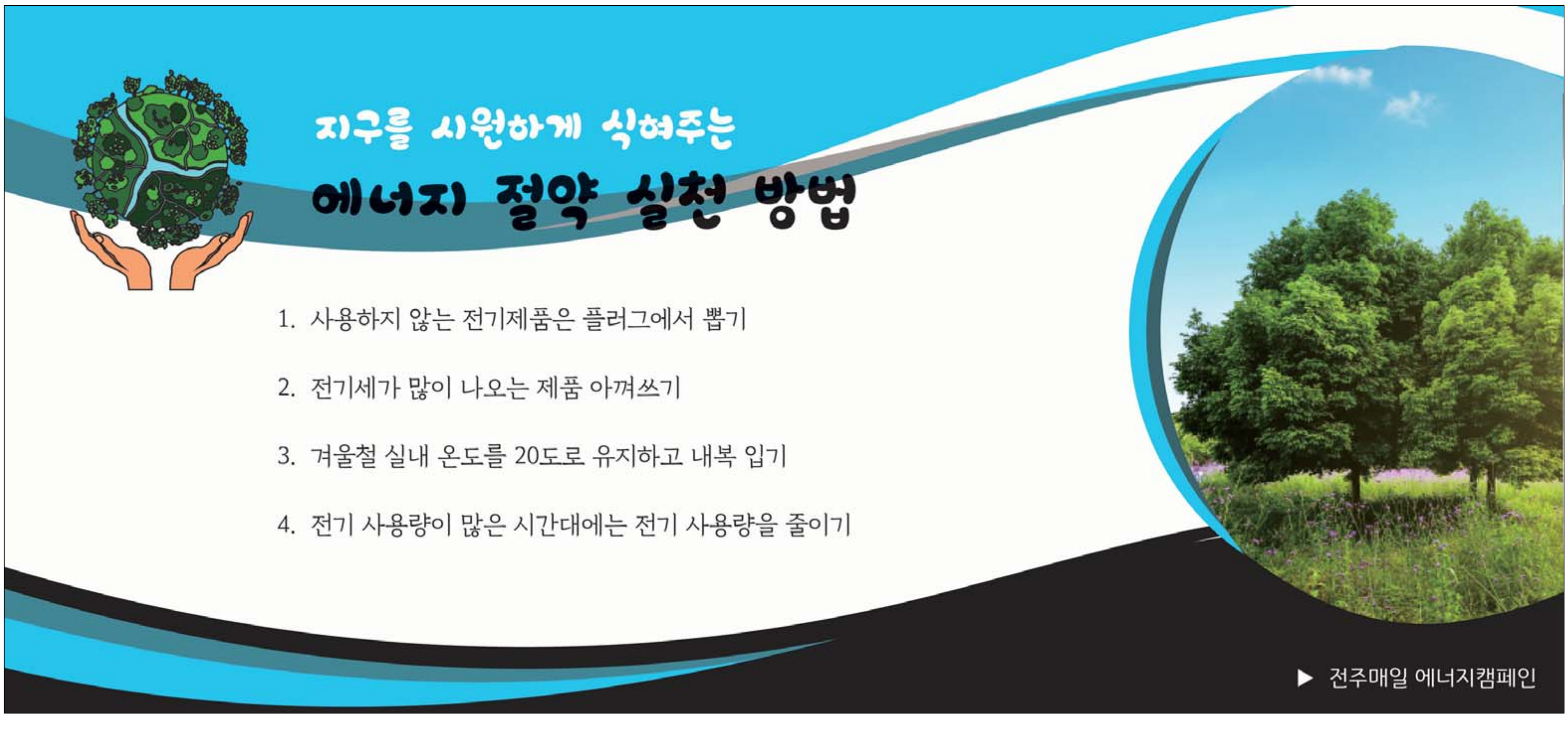
특히 가공 창업 교육과 시제품 생산 지원, 지역 농산물을 가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힘쓰며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군민불편 해소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부안군은 지난 8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을 최종 선정했다.

군은 각 부서 추천 적극행정 우수사례 24건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팀장 7명의 1차 실무심사를 거쳐 5건의 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결과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권민성 주무관이 '실뱀장어 조업을 위한 이동성 구획어업(7구역) 신설'이라는 사례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예측 불가한 기상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해 명품 부안쌀 '천년의 솜씨' 재배농가에게 볏짚환원 보상금을 지급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이끈 농업정책과 조성은 주무관과 국가유공자 및 대표 유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추진한 상하수도사업소 김은정 수도행정팀장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안=김석진 기자